

<p>주보 광고를 원하시는 업체는 kccosd@gmail.com 으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p>	<p>주보 광고를 원하시는 업체는 kccosd@gmail.com 으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p>	<p>짱 부동산 이동희 유스티노 #01421988 이남주 올리아나 #01438381 (619) 300-4124 jnkinc2000@yahoo.com</p>	<p>주보 광고를 원하시는 업체는 kccosd@gmail.com 으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p>
<p>제이슨 정 부동산  (858) 603-2333 Jason4989@hotmail.com</p>	<p>샌디에고 한인 유일 퍼시픽 홈랜드 에스프로 여러분의 부동산 매매 믿고 맡겨주세요. 30년 경력의 에스프로 오피서가 편안하게 모십니다. 한국어 오피서: 성지은 세라피나 Jieun.song@phescrow.com T)858-565-4009, C) 858-380-4244</p>	<p>메디 스킨케어 858.277.1005 맑고, 깨끗한 피부 우리성모병원 안에 있습니다.</p>	<p>주보 광고를 원하시는 업체는 kccosd@gmail.com 으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p>
<p>Century 21 부동산 원 덕재(요셉) (619) 300-8344 DRE# 1803609</p>	<p>주보 광고를 원하시는 업체는 kccosd@gmail.com 으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p>	<p>UDreamDental 유드림 치과 <치과 종합 병원> 임플란트, 틀니, 사랑니, 발치, 교정, 크라운 치아에 관한 모든 치료를 한 곳에서 해결해드립니다. 매니저 박성희 엘리자벳 (949) 514-5605</p>	<p>우리성모 병원 WOORI Medical Group 858.277.7111 처음과 같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p>
<p>Five & Two Limo, Inc. (CA License: TCP#20795-B) LAX & San Diego 공항픽업 콜택시,맞춤관광,골프투어 (858) 472-7927 김호익 안드레아 Limo52@hotmail.com</p>	<p>BEST 홈 리모델링 마루, 타일, 케비넷, 페인트 등, 하우스 모든 공사 858-997-4767 곽효진 (대건 안드레아) 장숙미 (마리아)</p>	<p>주보 광고를 원하시는 업체는 kccosd@gmail.com 으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p>	<p>앤디 박 아메리카 부동산 (858)922-9772 부동산 브로커 주택, 비지니스 전문 AndyPark2020@gmail.com</p>
<p>주보 광고를 원하시는 업체는 kccosd@gmail.com 으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p>	<p>부동산과 용자를 함께 책임지는 원스탑 서비스 스티브 리 858-800-CALL</p>	<p>SUNNYSIDE SERVICE Cremation · Funeral 써니사이드 장의사 김재중 24시간 FDR#2224 909-270-7414 / 714-932-8091 www.sunnysidecremation.com 6322 El Cajon Blvd., San Diego, Ca 92115</p>	<p>TAX & ACCOUNTING Certified Public Accountant 김명선(올리아), CPA, MSA Phone: 760-407-7905 Fax: 760-444-2688 MKCPACOM@gmail.com</p>

❖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오후 12시 (영어)
(셋째 주일은 없음)
오후 12시 30분
토요일 저녁 오후 7시 30분
평일미사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 토요일
오전 10시

❖ **성사 및 교리 안내**

고해성사 평일 미사 30분 전
주일 미사 1시간 전
혼배성사 결혼 6개월전 신청
유아세례 매월 둘째 토요일 저녁 미사 중 사무실에 신청
병자성사 및 봉성체 사무실에 신청

❖ **사무실 안내**

주 일 11:00 AM ~ 12:30 PM
1:30 PM ~ 2:30 PM
화 ~ 금 9:00 AM ~ 3:00 PM
월, 토 휴무
새로 전입 오신 분, 타 본당으로 전출 가시는 분은 꼭 사무실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임사제 및 평협위원**

사 제 김학봉 바오로 858.292.1960
평협회장 이준 알베르토 858.776.6810
총 무 박용철 요한 858.688.1417
총구역장 이명호 모세 619.843.1067

2020년 7월 26일(가해)

연중 제17주일

❖ **오늘의 전례**

입 당 송 |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제1독서 | 열왕3,5-6 7.7-12
<너는 분별력을 청하였다.>

화 답 송 | ◎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 주님은 저의 몹이오니, 당신 말씀 지키리로 약속하였나이다.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냥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웁니다. ◎
-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애를 베푸시어 저를 위로하소서.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 됩니다. ◎
- 저는 당신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모든 규정을 바르게 따르며, 저는 온갖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
- 당신의 법 하도 놀라워 제 영혼 그 법을 따르나이다. 당신 말씀 밝히시면 그 빛으로, 미련한 이들이 깨치나이다. ◎

제2독서 | 로마8,28-30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천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 음 | 마태13,44-52<또는13,44-46>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영성체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해 설	❖ 금주 봉사자				❖ 다음주 봉사자			
	토요일	주 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 일	화요일	금요일
1독서	김선영	이승봉	하재분	심자경	김선영	하재분	김정화	심자경
	한소연	이 준	이창연		한소연		박용철	

연중 제 17주일 강론

찬미 예수님! 예수님의 전 생애를 묵상하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요즘은 ‘고통의 신비’에 대하여 묵상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코로나19라는 이 고난을 하루빨리 거두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께서 백신 및 치료제라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길 청합니다.

어느 성서학자는 하느님을 가리켜 세 마디로 정리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1) 창조하시는 하느님! 2)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느님! 3) 완성하시는 하느님, 영광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느님!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하여 가치나 의미를 부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들을 찾고 추구합니다.

그런데 지도자 또는 통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인지 오늘 제 1독서에 나오는 솔로몬 임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그러자 솔로몬이 청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청하지 않습니다. 장수, 부귀, 원수값음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은사를 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하느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춥니다. “주저의 하느님,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백성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은사를 청합니다.

첫째,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 경청하는 마음 자세를 청합니다. 민의를 들을 줄 아는 지도자, 참모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지혜와 분별력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그가 청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청해야 합니다. 저마다 자기가 맡은 이들을 위하여 청해야 합니다.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청해야 하고, 아빠는 자기 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청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청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청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청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아 준다는 마음으로 청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자기 국민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 청해야 합니다. 또 자국민의 원의(願意)를 들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독불장군식으로 자기 맘대로 하지 말고 시민을 위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도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의 비유, 진주의 비유입니다. 밭에 묻혀 있는 보물과 같이 그 가치를 발견하고 아는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최고라고 여기는 가치를 얻으려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도할 때 바치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최고의 보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청했습니까? 어젯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은 무엇을 주님께 청했습니까? 당신이 청한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보물입니다.

한자로 땡땡거릴 땡자가 있다고 몇 달 전에 제가 강론 때 말씀드렸죠? 땡 = 돈(金) + 힘(力) + 남녀(男女). 돈과 힘과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사람은 땡땡거리며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오 복음 산상설교(5~7장)에서는 우리가 주님께 먼저 청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추구하여라.”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자기가 돌보아야 할 책임을 지닌 한 사람으로서 나는 오늘 주님께 무엇을 청하며 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 마음의 회개를 위한 기도**

하느님 아버지, 시급한 위기에 처한 세상에 당신의 신성한 뜻 안에서 모든 영혼이 평화와 안녕을 찾게 하소서. 당신의 뜻은 지금 이 순간 거룩한 사랑으로 사는 것임을 각 영혼이 이해

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각자의 양심을 비추시어 당신의 뜻 안에서 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바꿀 수 있는 은총과 시간을 온 세상에 허락하소서.

온갖 악한 죄를 저지르려는 욕망을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서 없애 주소서. 난잡한 행위를 자유라고 여기도록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거짓된 가면을 벗겨 주시고, 이것이 ‘죄의 종살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하소서.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 실외 미사

- 1) 실외미사에서는 거리두기를 합니다.
- 2) 실외미사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합니다.

•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주일 12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는 골롬바 학교 런치를 위한 야외식탁에서 미사를 합니다.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미사는 아그네스 홀 옆 남쪽 방향 주차장에서 제대를 놓고 의자를 거리두기 하고 배치하고 야외미사 거행합니다.

• 고해성사는 매주 토요일 저녁미사 30분 전과 주일 낮미사 30분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소성당 앞에 마련한 캐노피(천막)에서 있습니다.

•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영성체는 하실 분은 집에서 미사동영상을 보거나 대송을 바친 후 주일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0분까지 골롬바 성당 뒤쪽 주차장 음악실 앞에서 영성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미사가 없는 날에도 사제가 봉헌하는 매일미사는 사제관이나 제의실에서 봉헌합니다. 미사봉헌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계좌

- 교무금(Monthly Contribution)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에 송금하시는 분의 <성함 세례명>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Bank: Hanmi
- Routing No: 122039399, Account No: 500 562 994
- 교무금·성소·감사 우편 접수: Check Payable to KCCOSD
- 주 소: 3327 Glencolum Dr. San Diego, CA 92123

◆ 지난주 미사 참례신자 통계

토요 미사	11
영어 미사	-
낮 미사	38
합계	49

◆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봉헌 김학재, 김현철, 박지운, 송순근, 신영호, 이승환, 홍은상 (총 7명: \$5,950.00)
- 성소후원금 김현철 (총 1명: \$50.00)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낮 미사: \$327.00 토요일 미사: \$65.00